

신나이가이멘 - 내년 춘하절 소재 등을 전시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내년(2003년) 춘하절용 소재를 “새바람에의 유혹”이라는 테마(Thema · theme)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신상품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개발된 대두 섬유를 소개하면서 논 · 포르말린(non-formalin)처리한 “텐셀 A-200”을 사용한 “셀파인”외에도 중국에서 방적부터 봉제까지 일관 생산하게 되는 상품을 소개하였다. 앞으로 텍스타일의 해외생산비율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제품의 생산비율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판매고의 구성은 실이 50%, 텍스타일과 제품이 각각 25%씩이며, 실은 나이가이 · 텍스타일이 월 220 230톤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실까지 합치면 흑자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월 평균 45종에 이르는 다품종(多品種)의 실을 품종당 최소 500kg 이상의 소로트(小 lot)까지 생산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협력공장이 소품종 대로트(小品種大 lot)방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볼륨 · 존(volume zone)의 실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텍스타일은 수요자인 봉제공장이 계속 해외로 이전하고 있고, 또한 텍스타일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텍스타일의 생산도 해외 생산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고 제품의 해외 생산 비율도 2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내년 추동절이면 신상품으로 개발한지 3년을 맞게 되는 텐셀 · 아크릴 복합의 기모(起毛)가공한 “셀웍”을 전시하고, “상하이”지역에서 현재 스웨터 100만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 추동절에는 방적에서 제품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만들어 150만매 규모로 생산을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내년 춘하절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되는 “셀파인”은 논 · 포르말린으로 흡습 · 통기성이 좋고 잔털이 없어 깨끗한 표면감이 특징인 점을 살려

셔츠 및 이너(inner)로 상품화하게 될 것이다. 면에서는 벌키성이 좋은 단섬유 “벤갈”과 초장섬유(超長纖維) “카레즈”의 고급 면사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향간에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이너스·이온”발생섬유도 선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제휴기업인 산둥성(山東省)의 복양화강생물화학공정연합공사(陽華康生物化學工程連合公司)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두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대두박(大豆粕)에서 구상단백질(球狀蛋白質)을 분리하여 뽑아낸 다음 방사(紡絲)한 “대두섬유(大豆纖維)”를 소개하고, 이 섬유를 연간 1,500톤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였고 필라멘트도 개발 중임을 발표하였다.